



하얗게 핀 배꽃사이로... 17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배 과수원에서 농부들이 하얗게 핀 배꽃 사이를 오가며 인공수분을 하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신청사 내년 3월 입주 앞두고 백운광장 교통대란 우려

판매·업무시설도 임대... '주차전쟁' 불 보듯

광주시 남구 신청사 입주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습 교통 정체지역인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운고가 철거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주차장 마련 대책도 지지부진해 단순 신호체계와 차선변경으로는 공공청사와 판매·업무시설이 대거 입주할 남구 신청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내년 3월 신청사 입주를 목표로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건물(지하 6~지상 9층·건축면적 3014㎡)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진행중이며 18일 실시계획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분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 공사를 앞두고 최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백운교차로는 현재 독립로, 대남대로, 서문로, 봉선로, 회재로 등 5개의 도시·간선도로가 교차하면서 교통 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수준인 F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서비스 최악수준(F단계) = 신청사가 들어설 경우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만 하루 평균 13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주변 진출입로 및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구는 이 같은 지적에 5개 차로의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하거나 교차로 간격을 줄여 이들 차량을 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이 실시될 경우 독립로에서 돌고개역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의 평균 대기행렬이 300m, 최대 대기행렬이 504m로 신호를 2~3차례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부분 교차로의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난 대책없어=신청사 1~4층이 오는 2022년까지 민간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임대됨에 따라 신청사 내 441대의 주차면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구는 주월동 구 보건청과 보건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남구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소유주와 의견 조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용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청사와 1km 떨어진 현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가 "백운광장의 고가 철거되고 인근 교통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사 입주는 사실상 무리한 선택"이라며 "지금이라도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올 광주인권상에 문정현 신부

5·18기념재단 "한평생 소외 이웃과 고통 나누며"

생명평화운동가 문정현(72) 신부가 2012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17일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수상자로 문 신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문 신부는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의 국내

두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권상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광주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 달러와 금장 메달, 상장이 수여된다.

심사위는 수상자 결정문을 통해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는 가톨릭 사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평생을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과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 왔



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1974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주도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 ▲1986년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단식과 집회 참여 ▲1999년 SOFA 협정 및 평화 미군기지 확장 반대 ▲2010년 4대강사업 반대 등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해 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08분

달출몰 03시 59분
달질 16시 29분

아침·저녁 쌀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며 일교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8/22℃
목포	맑음	8/19℃
여수	맑음	11/18℃
나주	맑음	6/23℃
완도	맑음	8/19℃
구례	맑음	5/22℃
강진	맑음	6/19℃
해남	맑음	4/20℃
장흥	맑음	4/20℃
순천	맑음	9/21℃
영광	맑음	6/20℃
진도	맑음	6/19℃
전주	맑음	7/23℃
군산	맑음	6/20℃
남원	맑음	7/23℃
홍산도	맑음	8/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0.5~1.0m	주의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5~2.0m	낮음	낮음

◇주간날씨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1	12/19	13/17	13/16	12/19	11/22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문닫게 한다

복지부 7월부터...1일 이상 휴원 제재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하지 않은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 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되 가벼운 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회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